

4일 Market Index			
코스피	4028.51	코스닥	929.83
	(-7.79)		(-2.18)
금리 (국고채 9년)	3.025	환율 (원·달러)	1471.00
	(-0.016)		(+3.00)

D램 가격 1년 새 6배 ↑... 삼성·SK, ‘증산 모드’ 전환

내년 서버 D램 수요 35% ↑
공급 증가율은 23% 그칠 듯
메모리업계, 설비 증설 러시

범용 D램을 중심으로 반도체 메모리 수요가 업사이클에 진입했다. 삼성전자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세에 D램 수요가 급증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비 운영 전략을 강화하는 데 분주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PC용 D램 범용 제품 DDR48Gb 평균 가격은 8.1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1월 1.35달러 수준에서 폭등한 수치다. 메모리 업체들이 AI용 고성능 제품 생산을 늘리면 서 범용제품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D램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내년 서버용 D램 수요가 올해 대비 35%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반면 공급 증가율은 23%에 그칠 것으로 진단했다.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상황이 이어지며 가격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상황에 메모리 제조사들은 증설을 서두르며 D램을 중심으로 메모리 수급난에 대응하려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생산능력의 상당 부분을 범용 D램에 할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현재 경기 평택캠퍼스와 화성캠퍼스의 파운드리, 낸드플래시 메모리 일부 라인을 D램 생산라인으로 전환하는 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20%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세 매물이 없다

4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매물접수 안내문이 붙어있다. 올해 서울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9.7년을 모아야 하고, 전세보증금 마련에는 5.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구매력 지수도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서울의 전세가격은 공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전세 물건 감소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를 통해 “최근 범용 D램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다”라며 “HBM과 범용D램 간 상대적 수익성을 고려해 추가 증산 규모는 시황을 모니터링하며 직접 수준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백그라운드에서 D램 관련 전략을 공개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향후 수년 동안 D램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장기 대량 공급 계약 보다는 단기 계약 위주 영업 전략을 강화하는 기조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청주 M15X 증설과 더불어 기존 팹을 활용해 범용 D램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회사는 M14 팹의 일부 생산라인 전환 투자, 이전 M16 팹 잔여 공간, 노후 팹인 청주 M8 및 이전 M10 팹 보유 공간 등을 범용 D램 생산 능력 확대에 활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청주 M15X 팹이 HBM 생산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범용 D램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조정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메모리 업체들의 증설에도 실제 생산능력 확대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따른다. 삼성전자가 평택캠퍼스

신규 라인 건설을 진행 중이나 가동 시점은 이르면 2028년 상반기로 관측된다. SK하이닉스 역시 용인 1기 팹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2027년 말 본격 가동이 가능해 당분간 즉각적인 공급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업계 전반에서는 D램 가격이 수개월째 강세를 보이는 만큼 메모리 시장이 우호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시장 구조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협상에 이블에서 원하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관측도 따른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신한금융지주회장 진옥동 ‘연임 성공’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이 연임에 성공했다.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4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날 회의는 각 후보의 경영성과와 역량, 자격요건 적합여부, 외부 전문가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후보자들을 심층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곽수근 회추위원장은 “진 회장은 통찰력, 도덕성, 업무 전문성, 조직 역량 등을 두루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재임 중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했다”며 “재무적 성과를 넘어 디지털과 글로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한 점이 많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후계자를 양성해서 지도자를 배출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처음에 들어와서 경영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다시 후계자들에게 잘 넘겨주시는 일들을 하길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진 회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을 하고, 글로벌 경영 역량을 키우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회장은 서울 덕수상업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 신한은행에 입행한 그는 1997년에는 일본 오사카지점에서 일했고 2002년 귀국해 여신심사부 부부장과 자금부 팀장을 지냈다.

2009년 9월 일본 현지법인인 SBJ(Shinhan Bank Japan)가 출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뒤 대표이사 사장까지 역임했다. 이번 회장 연임의 배경에도 재일교포 주주들의 지지가 있었다는 평이다.

최종 후보로 추천된 진 회장은 이날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후보 추천에 대한 적정성 심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확정된다. 진옥동 회장 후보는 오는 3월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면 3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젊은 리더’ 전진 배치... 신규선임 20%가 80년대생

SK그룹 2026 인사·조직개편
임원조직 강화로 미래성장 준비
김종화 지오센트릭 대표이사 겸직

SK그룹이 2026년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을 확정하고 ‘현장 중심·젊은 리더 전진 배치’의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앞서 진행된 사장단 인사에서 조직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 데 이어 이번 인사에서는 1980년대생 임원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AI 조직을 전면 재편하는 등 세대교체와 미래 성장 전략을 한층 가속화했다.

SK그룹은 4일 수퍼스추구협의회를 열고 각 사에서 결정된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 사항을 공유 및 협의했다고 밝혔다. SK그룹은 ▲현장 중심 실행력 제고 ▲조직 혁신과 내실 강화 ▲차세대 리더

육성 등을 기조로 각사의 실행력을 높이고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이번 임원 인사 및 조직개편의 초점을 맞췄다. 먼저 추가적인 사장단 변화로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 사장이 SK지오센트릭 대표이사를 겸직한다. 석유·화학 밸류체인 통합과 최적화를 도모하고 양사 간 시너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규 선임 임원은 총 85명이다. 지난해 75명에 비하면 10명 늘어난 수치지만 2022년 165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SK그룹은 젊은 인재들을 전진배치하는 등 과감한 세대교체를 통해 현장 실행력을 강화했다. 신규선임 임원은 85명인데, 전체의 20%인 17명이 1980년대생이며, 60% 이상(54명)이 40대로 구성됐다. 여성 신규 선임 임원은

8명 중 6명이 1980년대생이다.

신규 선임 임원의 평균 연령은 만 48.8세로, 지난해 만 49.4세보다 젊어졌다. 최연소 신규선임 임원은 안홍범 SK텔레콤 네트워크 AT/DT 담당으로 1983년생이다.

성장을 위한 조직 혁신 및 내실 강화 기조도 뚜렷하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그룹 전반에 조직 효율화를 시행했으며, 임원 조직 강소화를 통해 ‘작고 강한 조직’을 구축하고 미래 성장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거점에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AI 리서치 센터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안현 개발총괄 사장이 겸직한다. SK하이닉스는 글로

벌 생산 경쟁력 강화를 준비하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 조직도 신설한다.

또 글로벌 경영 환경과 지정학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AI와 반도체 중심의 전략 실행선을 제시할 ‘매크로 리서치 센터’도 세운다. 이곳에 글로벌 거시경제부터 개별 산업, 기업 분석에 정통한 전문가를 영입해 미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SK이노베이션은 최고경영자(CEO)직속으로 AX단을 신설하며, SK에코플랜트는 솔루션 사업(건축)과 에너지 사업(AI 데이터센터 등)을 통합한 AI 솔루션 사업 조직을 출범시킨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조직 개편을 계기로 미래 성장 기반 확장 속도를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양성운·원관희·차현정 기자 ysw@



▲경찰,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고소인 조사... 신변보호 조치
▲국힘 여성의원 “무고죄는 ‘꽃뱀론’이라 비판하던 장경태... 후안무치”
/사진 뉴시스

▲민주당 문진석, ‘인사청탁 의혹’에 “부적절한 처신 송구”
▲국민의힘, 헌법학자들과 ‘내란재판부’ 긴급세미나 “나치 특별재판소... 위헌성 우려”

▲이준석, 與 인사 청탁 문자에 “김현지 이름 등장 심각... 감시받지 않는 권력”
▲국힘 내부 ‘尹 절연론’... “尹과 정치적으로 절연해야” “계엄의 바다 건너야”